



봉우 컬럼

협력하라

늘 근심 속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사연을 물으니 할머니의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데 날이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고, 작은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오면 소금이 안 팔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지혜자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이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맑은 날은 두 형제가 협력해서 소금을 팔고, 비가 오는 날은 같이 우산을 팔라고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느 장로에게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토끼 같은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거북이 습성이란다. 그래서 고민이 많단다. 그런데 내가 그의 고민을 단 번에 해결해줬다. “장로님, 토끼 같은 자식이 정보를 얻어오면 거북이 같이 밀어붙이는 자식이 그 일을 성사시키면 되지 않소. 또 육지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뛰면 되고,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태우면 전천후가 될 거요. 형제가 서로 협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해봤는가? 줄다리기는 절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협동하고 협력해야 이길 수 있다. 초일류기업을 꿈꾸는가? 노사가 하나 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일등 국가를 꿈꾸는가? 여야가 협력할 때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가? 가족이 하나 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협력만이 성장이고, 행복이다.

별과 나비는 꽃과 상생관계요, 공생관계다. 별과 나비는 꽃이 필요하고, 꽃에게도 별과 나비가 필요하다. 별과 나비는 움직일 수 없는 꽃의 암술과 수술의 수정을 돕고, 별과 나비는 거기서 꿀을 얻는 것으로 협력하니 아름답지 않은가.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협력의 구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

어떤 문제든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다. 하계산상집회 둘째주 첫날, 총회장 목사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주셨다. 인생사에 답안지를 제시하신 것이다. 그 공식은 다름 아닌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다.

“과나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의 소원은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 다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도 그렇진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레미야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

니다. 그때 모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출14:15) 라고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셨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대하32:20), 그가 병들었을 때도 방성대곡하며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사38:3).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달라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

니다. 그때 모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출14:15) 라고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셨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대하32:20), 그가 병들었을 때도 방성대곡하며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사38:3).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달라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

니다. 그때 모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출14:15) 라고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셨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대하32:20), 그가 병들었을 때도 방성대곡하며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사38:3).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달라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



사도행전은 계속된다(2016 하계산상집회, 장성 예수중심교회)

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렘29:11).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어 평안을 누리고 소망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 다 공개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렘29:12). 너희의 필요한 것을 부르짖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응답과 소망의 열도는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사 우리가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렘33:3).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았습

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히5:7).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18:7)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갈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시편 107편을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막 같은 길을 갈 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망과 쇠사슬에 매였을 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얽힌 것을 풀어주셨으며, 못문을 깨뜨리시며 쇠뿔장을 꺾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위경에서 건지셨고, 광

있는데도 문제를 못 푸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산상집회에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다 문제 해결 받고 하산하십시오.”

이번 산상집회의 특색은 간증의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의 수행비서인 한은택 전도사가 간증을 했는데, 그는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해외집회를 가면 수건 두 개를 접어 그 위에서 기도를 하신다.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시는지 수건에 무릎 자국이 그대로 있다.”고 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나라, 기업, 가정,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영혼을 모두를 살피우는 산상집회



소경이 눈을 뜨고 목사님 코를 만지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3~17)

우리는 예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다

2008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집회 첫날, 집회를 주관한 필립 목사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목사님은 21세기의 사도며,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분을 이해하는데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이초석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립 목사가 저를 제대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제가 교만하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저의 신분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성경말씀으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4~15).

기도의 열도와 기적은 정비례한다

여러분이 누군지 이제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크게 말씀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송장을 살리시고, 하갈이 울부짖자 사막에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며(롬4:17),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시고(왕하20), 홍해를 순간 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시 136:13).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눅18:27). 바로 그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더욱이 허물없는 친구까지 되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마28:18)? 우리는 정말 대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그렇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올림픽공원에서 태양이 작열할 때

‘구름아, 태양을 가려라’ 라고 했던 것, 고단에서 제명되었을 때도, KGB에 끌려갔을 때도, 마스크와 언론의 가차 없는 공격에도 좌절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4명이나 살리며, 앓은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며, 에이즈 환자도 손수건으로 닦아내어 살렸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딸이면서,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이면서 왜 그러지 못합니까?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걱정근심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만 드는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입니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맏형이시며 친구이신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말씀하시건만 속을 꿰고, 좌절하고 있는 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주위 사람들의 동정의 말이나 위로의 말이 정작 나를 죽이는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가 아플 때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하는 말로 “병원 가봐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놔두면 큰 병 돼.”라든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니 어쩌니~” 라며 걱정하는 말을 할 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당신을 둘러싸고 굴레를 씌워서 현실로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그야말로 손 쓸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부정적인 말이고, 여러분을 죽이는 말입니다. 이 때 과감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데 이런 병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해야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데, 위로랍시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날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가 자기를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그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아! 제가 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의 구역식구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자주 자기를 때린다고 하길래 제가 위로하느라 ‘우리 남편도 그래.’ 라고 했는데, 그게 원인 이 라

면 원 인 일 까 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거다.’ 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느라 한 말이지만, 그 말을 타고 악한 것이 들어와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오랜 시간 상담하고 축복기도도 실컷 받아놓고는 “그런데, 목사님, 요즘 경기가 안 좋운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죠?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긴 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노력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봐요. 그러려면 뭇 하러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천인이, 만인이 안 돼도 나는 된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친구니까.’ 알겠습니까?” 라고 야단을 칩니다. 부정은 부정을 몰고 옵니다. 그 부정은 부정의 큰 파장을 낳아서 결국 부정의 결말로 치닫게 합니다. 요즘 언론과 마스크에서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느니, 수출이 저조하다느니, 헬조선

이니 하는데,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런 부정적인 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 말이 국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철야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늦은 식사를 하는데, TV에서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의사가 나와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 어보니 맞는 말이라 “맞아, 오래 썼으니 닳겠지.” 하며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도를 하려는데 멀쩡하던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3시간을 기도했더니 다리가 괜찮아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긍하는 순간 그것이 저를 에워싸고 짓누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현실에서 떨어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믿음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장인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었습니까? 걱정근심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동정소리, 위로 소리에 귀를 닫고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어느 날, 불평불만 많은 친구를 데리고 저의 절친한 친구 행운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행운이에게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를 소개하며, ‘여보게 행운, 이 친구가 자네를 만날 수 없다며 욕을 하길래 데려왔네. 이 친구 좀 만나주게.’ 했더니, 행운이가 하는 말이 ‘나는 믿음과 실력 있는 자만 만나준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과 행운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그러니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열지도 맙시다. 그러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이런 자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2016 여름성경캠프

7월 31일부터 인천교회 여름캠프가, 8월 7일부터 서울교회 여름캠프가 2박3일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린이가 되자'라는 주제로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 아이들이 많이 전도되었던 캠프이기도 했다. 개회예배 시작부터 아이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로 작정한 듯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했고, 누가 기존 아이들이고 누가 처음 온 아이들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

이어지는 로테이션 공과시간에는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찬양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르밧 과부 등 하나님을 감동시켜 복을 받은 많은 인물들을 배웠고, 이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르밧 과부처럼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며 잘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첫째 날 저녁 예배시간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는데, 기도제목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캠프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셨고, 다치거나 배탈 난 아이 하나 없이 캠프는 진행되었다.

설치된 각종 물놀이 기구들,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미니레일기차와 바이킹 등으로 인해 아이들은 신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예배시간, 성령을 받기 위해 자리에 모인 어린 아이들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안수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불이 어린 아이들에게 임하자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하나님에 보실 때 얼마나 예쁜 모습일까 생각해본다.

교단의 미래는 바로 이 아이들에게 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잘 성장한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의심치 않는다. 부족함이 없는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곽이레 전도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우리가 택한 고생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낯선해지고 싶고, 돈을 잘 벌고, 내 집을 갖길 원하지요. 건강해지고 싶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어디까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았던 어느 칼럼의 내용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 사람처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사내에서 정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예인들처럼 낯선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들처럼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걸 참고, 뽀뽀한 닭가슴살만 먹는 건 원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는 원하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택한 고생’이 만든다고 칼럼의 글쓴

이는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아니요. 제 인생에서 이뤘다 하는 것들은 단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고생도 기꺼이 감수했던 것들만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평생 포기했던 영어공부를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버벅거리고 자주 까먹고 영어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길 그 누구보다 원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니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한 고생은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 다. 매일 단어를 외운다던가, 족스름을 무릅쓰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유창한 결과는 간절히 원하지만 고통스런 과정은 전혀 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대로 어떠한 고생도 기꺼이 감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광고라는 일 때문에 빈번히 신경성 위장염에 시달렸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말에 출근했고, 밤새워 아이디어를 고민했고 삼질했고

혼났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고통까지 기꺼이 택했기에 그것이 지금의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차곡차곡 오른 연봉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번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고 작은 땅을 사고 제가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고통을 택하지 않았다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고통을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을 얻지 못했을 거고요.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모든 고통과 고생까지도 기꺼이 선택하세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인간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창시자의 깨달은 바를 교훈으로 남겨 지키게 하고 수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이 땅에 친히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구원의 방법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타종교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믿고 내일 죽더라도 구원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을 드러야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병약한 자들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암송해야 한다면 배우지 못한 자들은 눈물을 삼켜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 으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보편타당한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구원은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8월 첫째 주 ~ 셋째 주 (8월 1일 월요일 ~ 8월 18일 목요일 저녁) 문의: 02.533.9191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안구건조증

50세 정혜영 씨는 요즘 저녁이 되면 눈이 아른거리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아프다. 가끔은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기도 해서 근처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지만 나이 들어 그렇다면서 불편할 때 넣으라고 인공누액을 처방해주었다. 약을 받으러 간 약국에서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두 달 이상 먹었지만 크게 효과를 느낄 수 없어 큰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해봐야 할지 고민이다.

우리 눈의 표면에는 눈물이 늘 눈을 적시고 있다. 눈물막은 각막(검은 동자)에 영양공급을 해주며 노폐물이나 이물을 희석, 세척해주고 항균작용을 하며 눈 표면을 매끈하게 유지함으로써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눈물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면 각막에 염증이 생기

고 때로는 보이는 것이 선명하지 않게 된다.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은 피로감이나 뻑뻑함부터 작열감, 콧물, 찢는 것 같은 통증, 가려움, 이물감, 쓰라림, 시립, 눈부심 등 다양하다.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은 증상의 변동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이 하루 중에도 호전과 완화가 있어 일반적으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증상이 심하고, 환경이나 업무량에 따라서도 증상의 변동이 있다. 예를 들면 독서나 TV시청, 컴퓨터 작업 등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나 에어컨, 연기, 건조한 실내나 사람이 밀집한 곳 등에 영향을 받는다. 습도가 낮은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더 증상이 심하기도 하다. 우리 눈 표면의 각막은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조직 중의 하나여서 단지 눈물이 그 표면에 매끈하게 유지되지 않음으

로서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안구건조증의 치료는 증상을 호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안구 표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심하지 않은 안구건조증은 적절한 인공누액 점안과 약화시키는 인자들을 피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중증도 이상의 안구건조증은 항염증치료를 병행하며 눈 표면의 점액성 눈물 성분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제도 출시되어 있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컴퓨터나 독서 등 근거리 작업 시에는 1시간에 5~10분 정도 휴식하는 것이 좋다. 식이요법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녹황색채소나 등푸른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오늘 메시지 랍신

***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울 대학부 25살 장희정입니다.** 늘 목사님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 만나는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네요.

요즘 우리 교단 젊은이들이 목사님을 통해 담대함과 지혜,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배우는 대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시를 받아보니 그 무엇보다 오직 목사님께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이 되시겠다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3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신 길이야말로 제가 다른 누구에게서 배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목사님의 것입니다.

요즘 건강도 만 좋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뛰시는 모습은 이미 등대지기이시고, 오아시스이시고, 별의 모습이며, 그 모습은 우리 교단의 차세대인 제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목사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와 제 꿈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밖에 없지만, 어린 나무가 성장하면 산을 위해 있듯이 저도 목사님 따라 열심히 가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건강 잘 챙기세요, 목사님!

저희랑 오래 계셔야죠. πππ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사랑해요♡

***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목사님은 내게 단비셨습니다. 구름과 상쾌한 바람이 되셨습니다. 따뜻한 옷과 배부름의 양식이었습니다. 캄캄한 내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셔서 등대지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물 없는 사막 길에 오아시스가 되어주셨고, 눈 덮인 산야에 햇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둔 밤길, 길을 몰라 헤매이는 모든 자들에게도 길벗이 되어 길을 가르쳐주셨던 목사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가주시고 들림 받으실 때 저도 함께 들림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30년 받아왔었던 큰 은혜, 저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 드립니다~~

살림! ♥

:: Global Study ::

✧ **멋지고 좋은 말을 뿌려라.**
행복과 성공의 단 열매를 따리라.

Sow good words
Then you will reap the fruit of success.
要撒好种子,说好话。
你必定会结出幸福和成功的甜果。

✧ **언어는 예술이다.**
명작과 졸작은 네 생각과 말로 창조한다

Language is art.
Master-piece or poor work are created
by yor thoughts and words.
言语是艺术。
用你的话语来创造出名作与拙作。